

학술단신

현장 국제 학술토론회

중국 현장학회와 불교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현장국제학술토론회가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 협서성 통천시인민정부의사 관공실에서 열린다.

한중일의 유식학 관련 학자와 법상종 스님들이 함께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오영근 교수(동국대, 대승불교 연구원장·시진)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현장법사의 불경역경으로 말미암아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현장법사의 역경과 한국유식학'을 주제로 발표한다.

동아시아문화화 발표회

동국대 문화대학 사학과 교수인 송중으로 모인 동국대 동아시아문화연구회(회장 김상현·시진)가 제1회 발표회를 23일 동국대 명진관에서 개최한다.

지난 겨울 창립 이후 처음 갖는 이번 발표회에서 조영록 교수(사학과)는 중국 천주 초경사지를 비롯한 중국 복건지역 한국관련 불교유적지 탐사 성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고려대장경연구 자료집 발간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중립스님)는 지난해 6차례에 걸쳐 실시한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세미나 자료집을 이달 말 발간한다.

자료집은 불교학, 불교와 철학, 불교와 현대과학의 세분야로 나뉘어 공과 윤리, 연속과 불연속, 반야심경의 공, 증용과 증도, 불교와 의식의 과학, 진화의 4차원과 마음의 탐구 등 관련 논문을 묶고 있다.

동양철학회 학술발표회

한국동양철학회(회장 양승무)가 제93차 월례 학술발표회를 26일 오후 5시 대우재단 빌딩 3층 강연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는 윤사순씨(고려대)가 '유교이념의 무용성과 가용성'을 류훈우씨(동국대)가 '초순(焦循)의 심성론'을 조남호씨(서울대)가 '리갑순(羅敬順)의 철학과 그 철학에 대한 한국철학자들의 논쟁' 등을 발표한다.

바른법 연구원

금강경 가르침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모임



바른법연구원의 회원들은 매주 일요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각자의 실천수행법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금강경을 연구하면 삶의 지혜가 보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생활과학에 적용시켜 자연농법, 제련기술, 심성개발, 스트레스해소법, 과학적 인기도법, 식탐해탈과 잠해탈과정 등을 연구하는 곳이 있다. 바로 경기도 고양시 원당에 위치한 바른법연구원(원장 김원수).

김원수 원장(홍익대 교수)을 중심으로 김만철(대한항공 기장), 정재영((주)동보 상무), 김기열(국방참모대학 교수), 최정운(가톨릭의대 교수), 김득영(안양대 교수), 안경희(서양화가), 김희중(성보교사) 등 학계, 재계, 교육계 등 각계 30여명의 연구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김원수장은 "요즘처럼 바른법과 그릇된 법의 구분기준이 모호한 시대에 바른법의 전형을 <금강경>의 가르침에서 찾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극락세계를 구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수행을 하는 것이 연구원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바른법연구원은 '탐심이라는 것도 본래 분별일 뿐 깨치고 보면 없는 것이요, 성내는 마음인 진심이 나 잘난척하는 치심도 분별이어서 본래는 없다'는 근본실상의 <금강경> 가르침(實無衆生 得滅度者)에 근거해 현실에서 부딪치는 '불가능한 일' 또는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이 바로 성내는 마음(진심:안된다)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고 본다. 이를 소멸하기 위해 수행의 측면에서는 진심(眞心)을, 실생활에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뒤아 본래 없음을 깨달음으로써 마음과 육체를 모두

스트레스해소법·무공해 제련술·심리치료

학자·예술가 등 30여명 분야별 연구

운택하게 하고, 살아 숨쉬는 불법을 실천해 나가게 된다. 회원들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경기도 원당 수련원에 모여 일정한 시간 동안 생활 속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토요일 밤 10시에는 철야정진법회를, 매일 새벽 2시30분에는 자시 가행 정진을 통해 잠해탈을 위한 수행도 한다.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 각종 문제의 해법을 과학적으로 접근 연구하는 바른법연구원의 활동은 새로운 세기 불교연구와 포교의 폭을 넓혀 나간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자 기자 (eilee@buddhapia.com)

"깨침위해 학문-수행 병행해야"

김호성 교수 '인도철학·불교학의 방법론'

학문과 수행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론은 무엇일까.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이 펴낸 <불교연구> 16집에서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는 '인도철학·불교학의 방법론에 대한 성찰'이란 논문을 통해 학문과 수행의 병행방법, 비평 평가 방법, 스승과 제자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학문하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김교수는 학문과 수행의 양립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깨침'에 대한 시각 전환, 분석적 독서법과 반조적 독서법 병행, 경허한 비평 수용 등을 제시했다. 또 비평의 윤리는 법과 사람을 엄격히 구분한 뒤 법에 대해서만 문제삼고 비평해야 하는 것이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계승'과 '창조'를 함께 해야 진정한 학문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가 주장하는 '동양적 전통적 공부방법론'의 특징은 인도철학 중의

우파니샤드와 선불교가 제시하는 공부방법론이 '학문과 수행' '스승과 제자'의 관계 설정에 대한 해답 속에서 주로 실재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또 교육과 학문의 일치(敎學一致), 회통적 관점 등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

불교학 방법론의 문제는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로 <불교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박태섭씨는 불교학을 문헌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서양적 근대적 방법론을 주장하고 있다. 김교수는 박씨의 주장은 우리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와 달리 고영섭씨는 <불학의 보편성·원효의 삶과 생각, 불학하기의 한 방법> 논문에서 불학은 교상판석(敎相判釋) 등과 같은 연구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교수는 이는 학문과 학문하는 자세 등의 공부방법론이론 구제적인 연구에 적용되는 연구방법론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어 학계의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암석 풍화특성 구체적 분석

'백제문화' 27집 석불보존책 실어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태안마애삼존불(보물 제432호) 등을 중심으로 암석의 풍화특성을 조사해 석불보존책을 모색한 논문이 발표돼 주목된다. '충남지역 백제시대 석조문화재의 석질과 풍화특성에 관한 연구'는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가 펴낸 <백제문화> 27집에 실렸다.

서산마애삼존불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석불의 풍화는 1차적으로 빗물 눈 안개 등에 의한 자연적인 풍화가 있고, 2차적으로 약해진 암석의 틈 사이로 물의 침투 증가, 풍화에 따른 암석의 강도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보전을 위해서는 물이 침투하는 틈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불교연구원 25돌

신행·학술활동 '성과'...27일 기념법회

1974년故 이기영박사에 의해 설립된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이 27일로 창립 25주년을 맞는다. 불교의 생활화 지성화를 목표로 활동을 벌여온 연구원은 서울·부산·대구·대전에 구도회를 결성, 불교학·인문학 관련 연구 발표, 국제불교학술회의 등 학자들과 인문학자와 일반인을 위한 불교사상강좌, 교양대학원 효과당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독학사> <불교연구> <불연이기영전집> 등 출판사업도 하고 있다. 27일 연구원 법당에서 2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학연구소

영브리스톨대-대만대학 사이트 개설 불교학자들 연구자료 네티즌에 공개

영국과 대만의 주요 대학에서 운영하는 종교연구소 가운데 영국의 브리스톨대학과 대만의 대만국립대학의 불학연구소는 인터넷을 즐겨 이용하는 불자네티즌들에게 불교학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창구다.

△Y.브리스톨대학에서 제공하는 '불학연구소(Center For Buddhist Studies)' 사이트는 인터넷 테크놀로지인 웹(Web)을 이용 지리적 여건을 초월해 연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불교연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교학 관련 정보에는 △아비달마·대승불교·상좌부불교 △불교사적(버틀리대 刊) △불교관련 회의 자료 △아시아 스님들의 수행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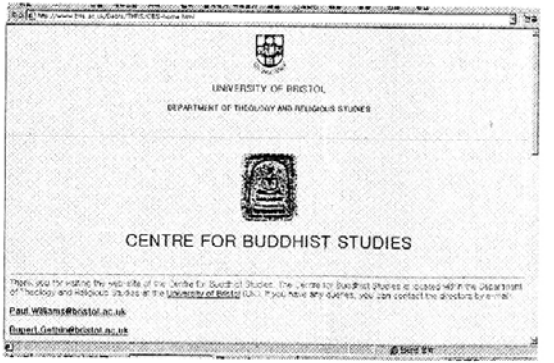
'아비달마·상좌부불교'에서는 국제인도학회에서 제공하는 원시경전 전산본과 CD 타이틀에 수록된 경전 정보를 비롯해 학술잡지와 불교도서목록 등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경전'에는 불광대장경 외에도 산스크리트·팔리어·티벳경전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일반자료'에서 제공한 고대어학습 프로그램은 다른 사이트에서 찾아보기 힘든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산스크리트어·팔리어·티벳어 등을 추가적인 과제학습을 통해 공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만불교와 관련해 인터넷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브리스톨대학 불학연구소

http://www.bris.ac.uk/Depts/THRS/CBS-home.html

대만국립대학 불학연구소 http://ccbs.ntu.edu.tw/CBS-bin/



"천년의 생명을 가람동기와 함께 합니다."

가람 동기와와 장점과 특징

1. 반영구적인 기와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동파로 인한 기와의 손상이 전혀 없어 지붕의 변형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완벽한 방수가 가능합니다. 암기와 숫기와는 비, 바람, 물의 역류를 막을 수 있게 설계 제작되어 완전 방수가 가능하여 건물의 목재를 보호합니다.
3.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장식 Box로 포장되어 운반, 보관의 편의성은 기본이고 평당 중량이 45kg으로 (흙기와 680kg, 청기와 550kg)가람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시공이 간편합니다. 완전조립시공으로 인한 시공의 간편함으로 인한 불사의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줍니다.



수유리 본원정사



강화 백련사

\* 가람 동기와에서는 생산, 시공을 본사가 직접 책임을 다하므로 불필요한 사정을 감소합니다.

절을 향한 마음 우리절 이정표가 있습니다.

규격간판(도로 지주용 간판)에 허가 대행, 제작, 설치를 가람기획 이 담당하겠습니다.



가람 기획 간판의 장점

1. 스텐레스 재질로 반영구적임으로 수명이 길다.
2. 야광 스텐레스로 밤에 반발 자체 발광으로 위치확인이 명확합니다.
3.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4. 가격이 저렴합니다.
5. 녹슬고 칠이 벗겨져 보기 흉해지지 않습니다.

가람 기획의 장점

1. 현재 까다로운 관공서의 규격 지주용 간판 허가를 대행합니다.(설치비용은 건설부 지침임)
2. 설치날짜의 기간을 준수합니다.

취급 품목

사찰안내간판, 사찰연혁판, 전주용간판, 계시판, 헌수막, 목간판, 아크릴판, 상패, 불사, 각종행사등...

가람동기와

☎ 02)720-5121 FAX. 02)732-3769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40 청송 B/D 202호

가람기획